

## 2010년도 회원자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식



■ 일시 : 2010년 10월 29일(토) 10:00 ~ 11:00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김동규(No. 45599) 회원자녀 김중유 학생

### 아버지를 이어 전기공학 선택

## 회원자녀 장학생 인터뷰 ...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협회에서는 매년 회원자녀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있으며, 올해 우수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버지께서 전력관련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전력분야를 전공하고 있어 전력기술인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우연히 장학금 모집공고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학금까지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졸업한 학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받은 오늘의 장학금은 저에게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기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학업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학부 마지막 학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 자녀분께서는 아버님을 이어 전기공학과를 선택하여 재학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을 전기공학과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력분야에 종사하고 계셔서 전기관련 제품, 특징 등이 낯설지 않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에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라디오 조립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전기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전기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학교 때에는 지금 저의 모교인 연세대에서 IT 관련 영재 교육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전력IT의 교육을 일찍 접하고 저의 진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로의 방향은 저를 전기관련 학과에 진학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았고 당연한 듯이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전공은 크게 '마이크로파 및 광분야', '반도체 및 전자재료 분야',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와 '컴퓨터 및 회로설계 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전기를 다루는 시스템 및 제어 분야와 통신을 다루는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Interview

**Q 부자(父子)간 전공이 같아 좋은점과 때론 나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버지와 전공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몇가지 좋은 점은 제가 지금 전공 공부를 하는데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멀게 느껴질 때 아버지께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와 연결시켜서 설명해주셔서 공부가 더 사실적으로 쉽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에 대한 공감대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아버지와 지식간의 배려와 이해가 다른 어느 가정보다도 높았던 것 같고 항상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공이 전기/전자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전과 약전을 모두 배우고 다루는데 비해 아버지께서는 강전 쪽을 전공하셨고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전공관련 모든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저의 전공을 인정하시고 항상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제가 지금 저의 전공을 사랑하고 더욱더 공부하고 싶은 열정(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Q 최근 스마트그리드, 저탄소 녹색성장 등으로 어느때보다 전기공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으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지구 온난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증가는 지구 온실효과를 가져왔고 이상기후와 각종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자연 재해들은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을 고취시켰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량이 전력 생산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면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의 생산량을 필요한 양에 맞추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는 전기공학도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스마트그리드의 부상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과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맞물려 전기 공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전력선 통신, Zigbee, 스마트 미터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화 되어 새로운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신기술, 실용시안 등이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춘 전기 분야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 진로를 선택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향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우리 전력산업분야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학교를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원하는 분야를 더욱 깊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향해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하기에 앞서 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Zigbee를 공부하였고 현재는 UWB에 대해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거리 통신을 위한 기술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도 이 분야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전력산업분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장학금 받는 입장이지만 미래에는 더 큰 보답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는 멋진 전력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고 꿈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